

편집자에게 보내는 글

유리체절제기 파편에 의한 안내이물 논문에 관한 의견

이영창 · 박정현 · 최광주 · 김대현의 유리체절제기 파편에 의한 안내이물¹의 논문에서 141페이지 우측 아홉째 줄에 “정상 내피세포소견이 관찰되었다”로 기술되었고, 142페이지 Fig 4 (B)의 설명문에 “Normal endothelial cell distribution is shown” 기술되어 있지만, 142페이지 Fig 4 (B)의 사진에 기재된 각막내피세포밀도는 692입니다. 각막내피세포밀도 692는 일반적으로 안과의사들이 정상소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² 어떤 사유로 그렇게 기술되어 그대로 논문으로 실렸는지 궁금합니다.

이 환자가 조선대병원에서 예전에 수술 받았던 환자이므로 예전의 우안 각막내피세포밀도에 대한 기록이 있을 테고, 그렇다면 예전 우안 각막내피세포밀도에 비해 692는 명백히 낮은 수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좌안도 그렇게 수치가 낮아서 양안 모두 각막내피세포밀도가 원래 낮았다면 이에 관한 언급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증례보고의 주된 목적은 요즘은 모두 1회용 수술기구를 사용하니 20개이지 유리체절제침을 사용한 뒤 공막에서 뽑아서 침의 끝을 확인하지 않고 버리면 안내이물을 남길 수도 있으니 외과에서 개복수술하면서 거즈나 캘리 수술기구 숫자세기를 하듯이 망막수술 후에도 20개이지 유리체절제침을 버리기 전에 수술현미경으로 한 번 확인하고 버리자는 취지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물론 저는 망막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과학회 회원들 전체로 볼 때는 참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발생하기 드문 합병증이라도 의사의 주의의 의무가 부족하면 재수술로 치료가 잘 되어도 향후 각막의 대상부전(decompensation)과 같은 휴유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메시지는 꼭 들어갔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안과의사들이 환자들을 위해 더욱 주의하지 않겠습니까?

의료사고 관련 소송이 점점해서 각막내피세포밀도 692를 정상이라고 저자가 표현했다면 아예 증례보고를 논문에 실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2년 추적관찰하던 급성녹내장 환자가 년 6월 10일 좌안 각막 대상부전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약 8개월째 보존적으로 치료 중입니다. 이 환자의 2009년 6월 10일 측정된 각막내피세포밀도는 우안 2304, 좌안 701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어

제 다른 환자 중에서 500~700 사이의 각막내피세포밀도로 각막이 투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막내피세포밀도 692를 정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증례보고의 대상환자는 60세 여자이니, 잔존여명이 20년이 훨씬 넘습니다. 따라서 살아 생전에 각막 대상부전이 올 가능성도 있는, 정상과는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담호

비전안과의원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1-15

Tel: 02-548-3579, Fax: 02-540-1431, E-mail: damholee@naver.com

참고문헌

1. Lee YC, Park JH, Choi GJ, Kim DH. Intraocular Foreign Body of a Vitreous Cutter Tip Fragment. J Korean Ophthalmol Soc 2010; 51(1):141-4.
2. Basak SK. Low endothelial cell count and clear corneal grafts. Indian J Ophthalmol 2004;52(2):151-3.

저자의 답변

저희 논문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각막내피세포밀도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가 논문에서 말하고자 했던 건 각막내피세포밀도의 측정조차 되지 않는 상태의 각막내피세포분포가 전에 비해 정상상태를 보였다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세포밀도는 감소되어 있는 소견이라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세포밀도와 세포분포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포밀도는 감소되었지만 세포분포 자체만 보기엔 정상소견으로 보기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적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영창 · 박정현 · 최광주 · 김대현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588

Tel: 062-228-3190, Fax: 062-225-9839

E-mail: eyelovehyun@hanmail.net